

韓 国 語

(解答番号 ~)

第 1 問 次の問い(A～C)に答えよ。(配点 32)

A 次の問い(問1・問2)の文の下線部㉠・㉡を, 例に示したようにハングルで発音表記する場合, その組合せ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, それぞれ下の①～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。

例 저기 ㉠있는 것이 질도 ㉡좋고 값도 싸요.
 発音表記 ㉠ [인느] — ㉡ [조코]

問 1 ㉠이번 주 일요일에 ㉡돌잔치가 있어요.

- ① ㉠ [이번주] — ㉡ [돌잔치]
- ② ㉠ [이번주] — ㉡ [돌잔치]
- ③ ㉠ [이번주] — ㉡ [돌잔치]
- ④ ㉠ [이번주] — ㉡ [돌잔치]

問 2 꽃병에 ㉠꽃 한 송이가 ㉡꽃혀 있었다.

- ① ㉠ [꼬찬] — ㉡ [꼬쳐]
- ② ㉠ [꼬탄] — ㉡ [꼬터]
- ③ ㉠ [꼬찬] — ㉡ [꼬터]
- ④ ㉠ [꼬탄] — ㉡ [꼬쳐]

B 次の問い(問1・問2)の文において、四つのうち三つには空欄に同じ文字が一つずつ入る。空欄に入る文字が他の三つと異なるものを、それぞれ下の①～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。

問1

- ① 아스팔트로 장된 도로가 많아졌다.
- ② 예쁘게 장해 주세요.
- ③ 언론의 자유는 장되어야 한다.
- ④ 저녁이 되면 장마차들이 하나둘씩 거리로 나온다.

問2

- ① 건강을 치는 일은 안 하는 게 좋다.
- ② 안개 속을 치며 천천히 걸어갔다.
- ③ 여기저기 매다가 두 시간 만에 도착했다.
- ④ 나는 엄칠 줄 모른다.

韓国語

C 次の問い(問1～4)において、a～cは韓国語の単語を漢字で表記したものである。下線部をハングルで表記した場合(例：長 장)の異同について正しく述べたものを、それぞれ下の①～⑤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。なお、()内は日本の常用漢字の字体である。

問1

5

a 僧侶(僧侶) b 憎惡(憎惡) c 寄贈(寄贈)

- ① aとbが同じ ② aとcが同じ ③ bとcが同じ
④ すべてが同じ ⑤ すべてが異なる

問2

6

a 下降 b 降伏 c 降雪量

- ① aとbが同じ ② aとcが同じ ③ bとcが同じ
④ すべてが同じ ⑤ すべてが異なる

問3

7

a 接觸(接觸) b 所屬(所屬) c 委囑(委囑)

- ① aとbが同じ ② aとcが同じ ③ bとcが同じ
④ すべてが同じ ⑤ すべてが異なる

問 4

8

a 夕刊

b 憂慮

c 幽霊(幽霊)

① a と b が同じ

② a と c が同じ

③ b と c が同じ

④ すべてが同じ

⑤ すべてが異なる

韓国語

第2問 次の問い(A～F)に答えよ。(配点 80)

A 次の問い(問1・問2)の(a)・(b)に共通して入るもの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、それぞれ下の①～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。

問1

9

- ・그 일은 평생을 (a) 잊을 수 없을 거야.
- ・시간을 (b) 좀 생각해 봅시다.

- ① 걸고 ② 놓고 ③ 두고 ④ 가지고

問2

10

- ・사과는 썰어서 믹서에 (a) 주세요.
- ・화장실 형광등을 새것으로 (b) 주세요.

- ① 갈아 ② 달아 ③ 돌려 ④ 바꿔

B 次の問い(問1・問2)において、ア～ウのように単語の形を変えたとき、その正誤の組合せとして正しいものを、それぞれ下の①～⑧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。

問1 11

ア 우습다 → 우스우면

イ 뒤집다 → 뒤지우면

ウ 아쉽다 → 아쉬우면

① 아 正 이 正 우 正

② 아 正 이 正 우 誤

③ 아 正 이 誤 우 正

④ 아 正 이 誤 우 誤

⑤ 아 誤 이 正 우 正

⑥ 아 誤 이 正 우 誤

⑦ 아 誤 이 誤 우 正

⑧ 아 誤 이 誤 우 誤

問2 12

ア 활발하다 → 활발하는

イ 행동하다 → 행동하는

ウ 피곤하다 → 피곤하는

① 아 正 이 正 우 正

② 아 正 이 正 우 誤

③ 아 正 이 誤 우 正

④ 아 正 이 誤 우 誤

⑤ 아 誤 이 正 우 正

⑥ 아 誤 이 正 우 誤

⑦ 아 誤 이 誤 우 正

⑧ 아 誤 이 誤 우 誤

韓国語

C 次の問い(問1~6)の ~ に入れるのに最も適当なものを, それぞれ下の①~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。

問1 초보자 잘 만든 것 같아요.

- ① 까지나 ② 로씨는 ③ 로부터 ④ 치고는

問2 민수 씨는 요즘 연락이 영 안 돼요.

- ① 바쁘나 ② 바쁘길래 ③ 바쁠까 ④ 바쁘지

問3 어제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맞고 왔어요.

- ① 대 ② 줄 ③ 통 ④ 자루

問4 초등학교 때 사진을 보니 그때가 그리워진다.

- ① 여태 ② 새삼 ③ 새로 ④ 선뜻

問5 내가 지금 된장찌개 끓이고 있거든. 오는 길에 파 좀 줄래?

- ① 사 ② 사다 ③ 사고 ④ 사서

問6 그게 좋은 일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.

- ① 생각하기 망정이지 ② 생각할 구석이 없지
③ 생각할 나위도 없지 ④ 생각하기 나름이지

韓国語

E 次の問い(問1~4)の下線部の日本語に相当する韓国語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, それぞれ下の①~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。

問1 去年の学生にひきかえ, 今年の学生は積極的な発言が際立っている。

작년 올해 학생들은 적극적인 발언이 돋보인다.

- ① 학생들과 달리
- ② 학생들을 대신하여
- ③ 학생들과 같이
- ④ 학생들을 본받아

問2 いろいろ考えていたら書かないうちから嫌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。

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 보니 싫증이 났어요.

- ① 더 이상 쓰는 게
- ② 다 못 썼는데도
- ③ 쓰기 시작하자마자
- ④ 쓰기도 전에

問3 彼は他の人に負けず劣らず一生懸命頑張った。

그는 열심히 했다.

- ① 남에게 지든 말든
- ② 누구 못지않게
- ③ 남에게 지지 않으려
- ④ 누구도 뒤떨어지지 않게

問4 今日はスーツを着て来るなって言ったでしょ。

오늘은 양복을 .

- ① 안 입고 온댔지
- ② 입고 오라고 안 했잖아
- ③ 입고 오지 말랬잖아
- ④ 와서 입지 말랬지

F 次の問い(問1・問2)において, その説明に相当するもの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, それぞれ下の①~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。

問1 다른 사람이 잘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등을 부러워하거나 미워하는 감정. 27

- ① 질투 ② 낙심 ③ 짜증 ④ 노여움

問2 마음이나 몸이 상쾌하고 거뜨하다. 또는 음식의 맛이 산뜻하고 시원하다. 28

- ① 깔끔하다 ② 서늘하다 ③ 개운하다 ④ 고소하다

韓国語

第3問 次の問い(A～C)に答えよ。(配点 40)

A 次の問い(問1～4)の ～ に入れるのに最も適当なものを, それぞれ下の①～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。

問1 A : 좀처럼 일이 진행이 안 되네.

B : 진짜. 해도 해도 끝이 안 보인다.

A :

B : 그럼 난 어떡하고. 그러지 말고 좀 더 버텨 보자.

- ① 그렇게 빨리 시작하지 그랬어.
- ② 일단 급한 일부터 먼저 끝내자.
- ③ 네 작업 끝나면 나 좀 도와줘.
- ④ 난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싶은데.

問2 A : 박물관이 이벤트 기간이라 5시 이후에 가면 입장료가 2,000원 할인된대.

B : 그래? 근데 2,000원 아끼자고 5시까지 기다려야 돼?

A : 2,000원은 돈 아니야?

- ① 그게 어디야.
- ② 그게 뭐더라?
- ③ 그건 어찌려고.
- ④ 그건 언제야?

問 3 A : 어! 바지 지퍼가 안 올라가네.

B : 31 밤마다 그렇게 먹어 대더니.

A : 그럼 배고파서 잠이 안 오는 걸 어떡해.

B : 아이구, 운동이나 하셔. 괜히 새 옷 산다고 하지 말고.

- ① 새 옷이라 그렇지.
- ② 그럴 리가 없지.
- ③ 그럴 줄 알았다.
- ④ 많이 배고팠나 보구나.

問 4 A : 이런, 오늘 빨래는 다 했네.

B : 32

A : 어, 그러니까 이따가 나갈 때 창문 닫는 거 잊지 마.

- ① 널어 두면 금방 마르겠지?
- ② 왜? 소나기라도 온대?
- ③ 끝났으면 창문 좀 열어 줘.
- ④ 같이 하니까 금방 하잖아.

韓国語

B 次の会話文を読み, 下の問い(問1・問2)に答えよ。

철수 : 민준아, 숙제했어?

민준 : 숙제? 아, 독서 감상문, 깜빡했다!

소현 : 그거, 그냥 아무거나 읽고 쓰면 안 되는 거 알지?

민준 : 무슨 소리야?

소현 : 너 선생님 말씀 제대로 안 들었구나. 영화로 만들어진 소설 찾아서 읽는 거잖아.

민준 : 영화로 만들어진 거?

철수 : 어, 소설만 읽어도 되는데 선생님이 소설과 영화를 비교해서 쓰면 점수를 더 주신댔어. 난 소설부터 읽고 있는데, 그 내용을 어떻게 영화로 만들었는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.

민준 : 근데 소설 읽은 다음에 영화 보면 대부분 실망하지 않나? 생략되는 내용도 많고 등장인물 수가 줄어들기도 하잖아.

철수 : 그렇긴 한데 영화를 먼저 보면 영화에 나온 배우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아서 말이야. 소현이 넌 어떻게 할 거야?

소현 : 글썄,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으로 얻은 정보는 계속 남을 것 같네. 역시 난 33.

민준 : 그래? 난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소설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은데……. 시간이 없으면 영화만 보고 써야지, 뭐.

철수 : 정말 너답다. 근데 아마 바로 티 날걸. 혹시 나랑 같은 걸로 쓸 거면 지금 읽고 있는 책 빌려줄 테니까 영화 보고 나서 얘기해.

민준 : 정말? 고마워. 그럼, 얼른 영화부터 봐야겠다.

問 1 33 に入れるのに最も適当なものを, 次の①~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。

- ① 영화에 나온 배우 이미지와 비교하면서 소설을 읽고 싶어
- ② 등장인물의 이미지를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책을 먼저 읽을래
- ③ 영화를 먼저 본 다음에 어느 부분이 생략됐는지 확인하고 싶어
- ④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소설에서 한번 확인해 볼래

問 2 本文の内容と一致するものを, 次の①~⑥のうちから二つ選べ。ただし, 解答の順序は問わない。 34 ・ 35

- ① 소현은 숙제를 잊어버린 철수한테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었다.
- ② 소설과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차이점에 대해 쓰면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.
- ③ 철수는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감상문만 쓰면 되는 상태이다.
- ④ 철수는 영화의 이미지가 소설 읽을 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.
- ⑤ 민준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영화를 먼저 보기로 했다.
- ⑥ 철수는 소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을 빌려주기로 했다.

韓国語

C 次の会話文を読み, 下の問い(問1・問2)に答えよ。

- 은서 : 겐지, 입학 준비는 잘돼 가? 방은 구했니?
- 겐지 : 부모님이 대학 근처에 구하셨다는데 잘은 모르겠네.
- 은서 : 모른다고? 애도 참. 남의 일처럼 말하긴.
- 정규 : 애는 잘 몰라. 전에 애네 형도 몸만 들어갔대.
- 은서 : 몸만 들어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?
- 정규 : 애네 형이 대학 갈 때 부모님께서 집이며 가전제품이며 생활용품까지 다 준비해 놓으셔서 형은 몸만 들어갔대. 그러니 이번에도 꼼꼼히 알아서 잘 해 주시겠지.
- 겐지 : 나도 물건 사러 다니는 거 안 좋아하는데 부모님이 다 해 주시니까 감사하지.
- 은서 : 아무튼 이제 곧 입학식이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텐데.
- 정규 : 맞아. 생각보다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더라고. 아빠랑 쇼핑센터를 몇 번이나 갔는지 몰라.
- 은서 : 나도 부모님이랑 다니면서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사야 할 게 또 많이 나오더라.
- 겐지 : 그래? 근데 너네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러 다니는구나.
- 정규 : 응. 의외로 부모님도 36 싫지만은 않으신가 봐. 20년 넘게 일본에 살고 계시지만 처음 유학 왔을 때가 생각나신대.
- 은서 : 우리 부모님은 막내 방이니까 예쁘게 꾸며야 한다면서 즐거워하시는 것 같던데.
- 정규 : 참, 지난번에 이사 준비하러 쇼핑센터에 갔다가 우연히 애네 어머니를 만났는데 막내를 먼 곳에 보내야 해서 걱정되신다더라.
- 겐지 : 그러시겠지. 은서 너 부모님께 자주 연락 좀 드려.
- 은서 : 그래, 알았어.

問 1 36に入れるのに最も適当なものを, 次の①~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。

- ① 살림살이 장만하는 게
- ② 입학식에 가는 게
- ③ 방 구하러 다니는 게
- ④ 서둘러서 준비하는 게

問 2 本文の内容と一致するものを, 次の①~⑥のうちから二つ選べ。ただし, 解答の順序は問わない。 37 · 38

- ① 겐지는 대학 근처에 방은 구했지만 이사 준비는 하지 못했다.
- ② 겐지의 형은 대학 들어갈 때 스스로 이사 준비를 했다.
- ③ 정규는 꼼꼼히 살펴 주시는 겐지 부모님이 부럽다고 말했다.
- ④ 겐지는 부모님이 이사 준비를 대신해 주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.
- ⑤ 은서 부모님은 은서 방을 예쁘게 꾸미고 싶어했다.
- ⑥ 정규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것을 걱정했다.

韓国語

第4問 次のポスターは、ある学校の生徒会長選挙の候補者とその公約である。これに基づいて、下の問い(問1・問2)に答えよ。(配点 8)

<p>후보자 기호[1]</p> <p>송민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학교 축제 때 음식물 판매· 도서관 운영 시간 연장· 방과 후 컴퓨터실 개방	<p>후보자 기호[2]</p> <p>오혜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학생 식당에서 샌드위치 판매· 컴퓨터실에 Wi-Fi 도입· 도서관에 외국어 서적 구입
<p>후보자 기호[3]</p> <p>박나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학교 축제에 연예인 초대· 복장 자율화· 도서관에 시청각 코너 설치	<p>후보자 기호[4]</p> <p>조한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학생 가방 자율화· 학생 식당의 메뉴 다양화· 학교 축제 때 노래자랑 개최

問1 次の文章は、この学校の生徒が今回の生徒会長選挙について書いたものである。この生徒が投票した候補者は誰か。下の①～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。

39

옛날에는 학교 축제가 지금보다 훨씬 재미있었다고 한다.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학교 축제를 잘 기획할 후보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였다. 하지만 축제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학습 환경, 특히 도서관의 시설 개선에도 의견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.

-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① 기호[1] 송민호 | ② 기호[2] 오혜린 |
| ③ 기호[3] 박나리 | ④ 기호[4] 조한성 |

問 2 候補者の公約からわかるこの学校の現状について,正しいものはどれか。次の①~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。

40

- ① 학생 식당 메뉴 중에 샌드위치 종류가 적다.
- ② 도서관에는 외국어 서적도 있고 만화책도 많다.
- ③ 컴퓨터실은 수업이 끝난 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.
- ④ 가방과 복장은 학교 규정을 따라야 한다.

韓国語

第5問 次の文章は、テソンの4日分の日記である。これを読み、下の問い(問1～5)に答えよ。(配点 20)

7월 2일 (토) 흐린 뒤 비

오늘은 토요일이다. 주말인데 어쩐지 마음이 무겁다. 선생님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예고 없이 시험을 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. 언제 시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준비는 해야겠지.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까. (A) 카페에 가서 할까. 고민 끝에 민규한테 전화를 해 봤다. 열한시에 역 앞에서 만나 카페에서 같이 공부하기로 했다. 버스를 타고 갔더니 길이 막혀서 5분 정도 늦었다. 민규는 벌써 와 있었다. 10분 정도 기다렸다고 한다. 민규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만 하다가 결국 공부는 못했다. 아, 공부하는 역시 혼자서 해야 되는구나. 내일은 열심히 해야지. 저녁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. 우산도 없어 옷이 다 젖어 버렸다. 오늘은 되는 일이 없는 하루였다.

7월 3일 (일) 맑음

④ 어제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 봐 오늘은 혼자서 도서관에 갔다. 밖의 날씨는 엄청 더워 죽을 지경이었지만 도서관 안은 냉방이 잘 되어 있었다. 자리에 앉아 책을 훑어보았다.* 아, 근데 가만있어 봐. 시험이 도대체 무슨 요일에 있을까. 어쨌든 금요일은 아니겠지. 목요일까지 시험이 없으면, 그 다음날에 있다는 걸 미리 알 수 있으니까 '예고 없는 시험'이 성립되질 않잖아. 그럼 목요일은 어떨까. 수요일까지 시험이 없으면 금요일에는 없을 테니 목요일에 볼 수밖에 없다. 그러면 날짜를 예측할 수 있으니 목요일에도 시험은 없다. 그렇다면 수요일도 화요일도 월요일도 무리다. 결국 시험을 볼 수 없는 게 아닐까.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다섯 시가 다 돼 집으로 돌아왔다. 오늘도 시간만 낭비해 버렸다.

7 월 6 일 (수) 맑음

어제까지 시험은 없었다. 주말에 생각한 대로라면 이번 주에 시험이 있을 리 없는데, 바로 오늘 시험이 있었다. 하긴, 예고 없이 시험을 본다는 게 가능한 일이다. 아무튼 어제와 그저께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 놓았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거 같다. 근데 선생님이 시험 날짜를 비밀로 하신 이유가 뭘까. 너무 궁금하다. 오히려 날짜를 미리 지정해 주시면 마음의 준비도 되고 점수도 더 좋아질 텐데 말이다. ④③ 다음에 선생님께 여쭙어 봐야겠다. 어쨌든 시험도 끝나 기분이 좋다. 이번 방학엔 좀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다. 바다로 갈까, 계곡으로 갈까.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다.

7 월 7 일 (목) 비

오늘 학교에 가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. 오늘도 시험을 본다고. 아니, 이럴 수가. 시험은 한 번만이 아니었구나. 교실이 시끌시끌했다.** 선생님께서 항의하는 친구들도 있었다. (B) 선생님의 말씀이니 어쩔 수가 없었다. 시험 문제는 어제 치렀던 시험의 응용문제라서 어제보다 어려웠다. 선생님은 시험이 끝난 후에 복습을 잘 했는지 확인하려고 하신 것 같았다. 어제께 들떠서 여행 갈 생각을 한 걸 후회했다. 내일은 어떨까. 오늘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. 내 마음이 꼭 오늘 날씨 같다. 슬슬 ④④ 걱정되기 시작했다.

* 훑어보다 : 目を通す

** 시끌시끌하다 : 騒々しい, ざわつく

韓国語

問 1 (A)・(B)に入れる語の組合せ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、次の①～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。 41

- ① A : 그러지 말고 B : 그러잖아도
- ② A : 그러면 B : 그래도
- ③ A : 또한 B : 하여튼
- ④ A : 아니면 B : 그래 봤자

問 2 下線部④とはどのようなことか。最も適当なものを、次の①～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。 42

- ① どこで勉強するか迷って、時間を無駄にしてしまったこと。
- ② バスの到着が遅れて、友達を待たせてしまったこと。
- ③ 友達とおしゃべりをしていて、勉強できなかったこと。
- ④ 雨に降られて、ずぶぬれになってしまったこと。

問 3 下線部④について、テソンは先生にどのように言うと考えられるか。最も適当なものを、次の①～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。 43

- ① 내일도 시험이 있을까요?
- ② 왜 예고 없이 시험을 봤어요?
- ③ 제 시험 점수 좀 알려 주시겠어요?
- ④ 시험 범위를 정해 주시겠어요?

問 4 下線部④のようになった理由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、次の①～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。 44

- ① 今日の試験の結果が芳しくなさそうだから。
- ② 明日も試験があるかもしれないから。
- ③ 旅行に行くのが難しくなりそうだから。
- ④ 明日も雨が降るかもしれないから。

問 5 本文の内容と一致するものを、次の①～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。 45

- ① 7月2日、ミンギユは10時55分ごろに駅に到着し、テソンが来るのを待った。
- ② テソンは、抜き打ち試験はないだろうと予測し、ほとんど勉強せずに試験を受けることになった。
- ③ テソンの友達は、試験問題が難しかったことを、先生に公然と抗議した。
- ④ 先生は、試験を実施した後、しっかりと復習をしておくように言った。

韓國語

第6問 次の文章を読み、下の問い(問1~5)に答えよ。(配点 20)

- (1) 늘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에게 수첩은 필수품이라 할 수 있다. 월 단위와 주 단위 계획은 물론, 시간대별로 하루의 계획을 촘촘하게* 세우지 않으면 주어진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. 수첩 관리를 잘 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시간을 잘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
- (2) 히말라야 서쪽 라다크 지방의 시간은 이와 다르다. 그곳에서는 ‘공그로트’라고 하면 ‘어두워진 다음부터 잘 때까지’를 뜻하고, ‘나이체’란 말은 ‘해가 산꼭대기에 걸려 있을 때’를 뜻한다. ‘치페 치릿’은 ‘해 뜨기 전 새들이 노래하는 아침 시간’을 뜻한다고 한다. 라다크 사람들은 ‘몇 시 몇 분’에 만나자는 식으로 약속을 하지 않는다.
- (3) 유럽에서도 목축과 농업이 중심이던 고대 및 중세 초기 사회에서는 시간이란 로마 신화에서의 시간처럼 우주의 반복되는 리듬에 지나지 않았다. 이러한 시간을 ‘순환적 시간’이라 할 수 있다. 시간이 관리되기 시작한 것은 유럽의 중세 도시에 교회의 종 대신 거대한 시계탑이 등장하면서부터라는 견해도 있다. 밭에서 일하던 일손을 놓고 기도를 올리는 밀레의** 그림에서처럼, 매일 올리는 세 번의 종소리에 따라 반복적으로 순환되던 중세 초기의 일상이, 시계탑의 등장과 함께 크게 바뀌어 갔다는 것이다.
- (4) 시계탑의 등장은 도시와 도시를 넘나들던 상인들의 활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. 근대 사회를 개척해 간 상인들은 미래의 이익을 예측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, 시계는 이러한 상인들에게 계산 가능한 시간을 제공했다. 종소리로 시간을 알려 주던 ㉠ ‘종의 시간’ 곧 중세의 ‘순환적 시간’이 아닌, 예측 가능한 미래를 알려 줄 ㉡ ‘시계의 시간’ 곧 근대 상인들의 ‘직선적 시간’이 등장한 것이다.
- (5) 시계탑의 등장 이후 지금의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수첩 등을 이용해 관리되는 ‘직선적 시간’이다. 아주 잘게 나뉜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두들 애를 쓰지만, 그러면 그럴수록 시간은 늘 부족하기만 하다. 인간이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인간을 관리하고 있는 느낌이다. 48 만을 강조하는 직선적 시간이 현대인들의 소

중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 버렸는지도 모를 일이다. 가끔은 별이 쏟아지는 별관에 서서 별을 헤아리거나, 신화의 세계에 빠져 순환적 시간에 자신을 맡겨 보는 것은 어떨지.

*흠촘하다 : 緻密だ

**밀레 : ミレー (19 世紀のフランスの画家)

韓国語

問 1 本文の段落(3)と段落(4)の小タイトルの組合せ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, 次の①~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。 46

	段落(3)	段落(4)
①	유럽에서의 시간관의 변화	시계의 등장과 직선적 시간
②	유럽의 목축과 농업	직선적 시간의 등장
③	교회의 종과 시계탑의 등장	상인의 역할과 순환적 시간
④	로마의 시간과 밀레의 시간	종의 시간과 시계의 시간

問 2 下線部㉔と下線部㉕に関する最も適当な説明を, 次の①~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。 47

- ① ‘종의 시간’은 자연의 반복되는 리듬을 시간으로 표현한 것이다.
- ② ‘시계의 시간’은 근대 상인들이 등장하기 이전의 시간을 뜻한다.
- ③ ‘종의 시간’이 등장하면서 미래의 이익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.
- ④ ‘시계의 시간’이 등장하면서 수첩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다.

問 3 48に入れるのに最も適当なものを, 次の①~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。

- ① 근대 과학의 중요성
- ② 합리적 효율성
- ③ 편리한 일상생활
- ④ 근본적 인식의 변화

問 4 時間観に関して本文の内容と一致しないものを, 次の①~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。 49

- ① 라다크 지방의 시간 표현 중에는 '시계의 시간'과 무관한 표현도 있다.
- ② 밀레 그림 속의 농부들은 반복되는 생활 리듬에 맞춰 기도를 올렸다.
- ③ 중세 초기 유럽의 시간은 시계탑의 시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.
- ④ 근대 이전의 시간이란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우주의 시간을 의미한다.

問 5 本文の筆者の考え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, 次の①~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。 50

- ① 수첩 관리를 잘할 수 있게 된 것은 전근대적 시간관념을 극복했기 때문이다.
- ②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 하지 말고, 순환적 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.
- ③ 현대인은 시간을 관리하고자 하지만, 시간이 인간을 관리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.
- ④ 동양의 시간관념보다 서양의 시간관념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다.